

문화



소극장도 우리들의 무대 "얼쑤~"

국악그룹 '얼쑤'가 국악단체로는 처음으로 소극장 정기 공연 무대에 도전한다. <얼쑤 제공>

타악그룹 '얼쑤' 23~27일 '바라뫼' 공연

산·사람·바람·흙... 스토리가 있는 무대

"소극장 무대 활성화 돼야 공연문화 살죠"

'국악 그룹 '얼쑤' 소극장 공연에 도전장을 던진다.'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얼쑤'(대표 김양준)가 소극장 공연이라는 과감한 도전에 나섰다.

소극장은 공연문화의 버팀목이다.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고, 관객과의 적극적인 교감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타 장르에 비해 관객층이 그리 두텁지 않은 국악 분야는 대부분 1~2회 공연에 그치는 게 보통이다.

올해로 창립 18년을 맞은 타악 그룹 '얼쑤'가 '산허리 돌아도는 바람'을 통해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옛 KBS 광주방송총국). '얼쑤'의 행보는 힘차다.

700석이 넘는 중극장 대신 선택한 138석의 '소극장' 공연은 '얼쑤'가 또 한번의 도약을 꿈꾸며 시도하는 프로젝트다.

'얼쑤'는 지역에서는 드물게 고정팬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타악 그룹이지만 활동 환경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소극장에서 펼쳐지는 타악 공연은 특히 매력적이다. 흘러내리는 땀방울, 악기를 두드리는 미세한 근육, 거친 호흡까지 제대로 느낄

수 있어 '폭발하는 듯한' 느낌을 얻게 된다. 이제는 보통명사가 '사물놀이' 역시 1978년 2월, 대학로 소극장 '공간 사랑'에서 첫선을 보이며 관객들을 흥취기 시작했다.

이번 공연은 음향과 무대 장치 등에도 최선을 다했다. 여타 단체들처럼 지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철저히 '얼쑤'에서 작품비를 마련했다.

'바라뫼'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작품은 화려한 타악 퍼포먼스 위주로 진행했던 기존의 '얼쑤' 공연과는 차별화된 모습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9명의 단원들은 공연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 수년전부터 '1인 1악기를 갖는다'는 목표 아래 악기를 배워왔다.

또 기존 '콘서트' 방식 대신 소극장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탄생한 '얼쑤'는 지난 2002년 광주시 남구 대촌동의 한 폐교에 소공연장과 풍물강의실, 도예체험, 염색체험실 등을 갖춘 공간을 마련,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 5000원. 문의 062-676-38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헌책방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개점 1주년

"전시·공연... 나눔의 결실 함께해요"

19일 김용택 시인 초청 '작가와와의 만남'도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광주용봉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개점 1주년을 맞아 도서기증전, 나눔전시회·공연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지난해 6월 17일 지역 최초로 문을 연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으로 지역민들에게 책을 즐기는 놀이터, 나눔의 심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1주년 기념 첫 행사로 섬진강의 시인 김용택씨를 초청,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헌책방' 작가와의 만남을 마련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함께 한 이



김용택 시인

김중도서 특별전, 대한적십자사 광주지사 도서기증전이 열릴 예정이다.

26일에는 오카리나 연주자 정인봉씨를 초대, 축하공연 '지구살림을 위한 액처콘서트'가 열리며 같은 날 주홍작가의 나눔 전시회 '나눔의 마법사 오색의 꿈을 그리다'가 일주일간 함께한다.

1년 동안 함께해준 후원자와 시민들을 위한 감사이벤트도 준비했다. 21일부터 일주일 간 헌책방 기록사진 전시회를 갖고 책 속에 상품폭주

를 숨겨두고 찾는 이에게 선물을 주는 '책속의 보물을 찾아라'와 헌책방 사진 콘테스트(22일까지 접수)가 열린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 30분~오후 7시까지 문을 열어, 기증받은 헌책을 소개하고, 나눔의 심터를 목표로 지난해 개점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오는 17일로 개점 1주년을 맞는다.



'책'을 즐기는 놀이터, 나눔의 심터'를 목표로 지난해 개점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오는 17일로 개점 1주년을 맞는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서 국제월드뮤직 포럼 열린다

19~20일 전남대

오는 8월 27~29일까지 광주 금남로 거리 등에서 열리는 '2010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을 앞두고 월드뮤직 포럼이 개최된다.

(사)아시아월드뮤직페스티벌(이사장 윤장현)은 오는 19~20일 전남대 용봉문화원과 컨벤션홀에서 국내외 음악산업관계 등 200여명을 초청, '광주국제월드뮤직포럼'을 개최한다.

19일에는 이번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을 맡은 이재진(자라섬 청소년재즈센터 이사장)씨와 이무용씨, 니콜라스 리바레트씨 등이 '뮤직페스티벌 사례 연구'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며 페스티벌에 참가할 예정인 미지, 정민아씨가 콘서트를 갖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진행하는 월드뮤직페스티벌은 금남로, 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 등 시내 일원에서 펼쳐지며 안숙선·김덕수 등 국내 뮤지션과 네덜란드의 여성 트럼페터 마이페, 프랑스 기타리스트 루이 빈스버그의 플라멩코 프로젝트인 '질리오' 등이 참여한다.

문의 062-350-247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의 062-655-8975.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기독교연합·천주교광주대교구

민족 화해·평화 기도회

한국전쟁 60주년 앞두고

한국전쟁 60주년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교회와 성당에서 민족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이어진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민족화해주간'(15~25일)을 맞아 전국 교회에서 '한국전쟁 60년,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향한 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기독교연합의회(회장 송정용 목사)도 15일 '한국전쟁 60년, 민족화해 주간을 시작하는 기도회'를 시작으로 매일 주제를 정해 회원 교회에서 25일까지 기도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22일 서울 삼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6·25 전쟁 60년 평화기도회'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천주교광주대교구(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도 17~25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기간으로 정하고 분당별로 매일 기도회를 봉헌한다.

특히 기도 기간에 포함된 20일은 천주교 주교회의가 정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분당별로 남북통일 기원 미사가 봉헌되고 천주교의 민족 화해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헌금도 모은다.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운호 주교(춘천교구장 겸 함흥교구장 서리)는 '기도의 날'을 앞두고 내놓은 담화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 대북정책의 기초를 보다 유연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정 친정방문·부모초청 행사 참가자 모집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친정 방문 및 부모초청 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된 이주여성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교통비가 지원된다.

10세대를 선발하며 16일부터 20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메일(ej1920@naver.com)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062-962-3395.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mall Business' (작은만남 큰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such as restaurants, cafes, and service centers. Each listing includes the business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